

내가 받은 계시와 간증



영동 스테이크 부장
박 재 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참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내가...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방언) 소리나는... 썩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많은 사물에 박식하며 또한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내 몸을 내어던져 불사르게 한다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근본은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힘찬 진리의 선언이나 교회의 부름에 오랜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회생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무슨 큰 뜻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선뜻 용서할 줄 알면, 우리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의 축복과 관련하여 분명

히 심판하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결핍하면 비난하기 일수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늘 조심해야 하며 형제 자매님의 사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또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권을 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임하신 바를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 주님의 사업 즉 교회 부름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시험당한 일을 읽고서 받은 계시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곁에서 보고 기뻐했다는 기사를 우리는 신 구약 성서 및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다른 성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 : 4-9과 고린도전서 6 : 19 아브라함서 3 : 22 그리고 교리와 성약 93 : 23—33 참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루시퍼(사탄)는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예를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였으므로 루시퍼는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육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이 천 인간 영들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지상의 시험을 거쳐 영생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나, 사탄의 무리들은 이 세상에 추방될 때에 육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반항하고 자기만의 영광을 주장하는 그 기세와 교만이 망각의 베일을 거치지 않고 추방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앙과 그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탄의 무리를 이겨 낼 길이 없다는 것이 제가 받은 계시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

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절~11절) 그리하여 사탄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중 들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무기는 구약성서의 말씀에 정통한 사실입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담하기 전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구약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험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의 탄생을 위하여 어머니는 산고를 겪었으며, 육신의 축복을 받아 부활할 수 있어 영생의 영광 앞에 많은 시험을 거쳐 승리의 열매를 달게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망자의 장막을 지나 현재에서 육신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결손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안의 통찰력이 발전하여 전세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시련을 거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말일 성도로서 뚜렷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신을 갖고 건설할 수 있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회복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은 늘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길이요,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며, 우리들이 선교 사업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지 않는 데도 우리에게 신권을 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맡기신 주님께서서 어찌 기뻐하시고 계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실히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사로서, 스테이크 선교사로서 이 교회의 회원 된 바의 기쁨을 또한 축복을 내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하며 소개하여 그들

이 성신의 도움을 입어 개신케 하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째되는 계명이고, 참된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딪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롭고 선한 재목으로 쓰이도록 기도하는 생활과 부름에 충실하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큰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오랫동안 간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한 후에도 이를 간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랫동안 간증하여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의탁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진리와 동일하며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계시로써 전해 주시는 스펜서 더블류 킵블 대관장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 계시 유일한 주님의 예언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보다 신약 시대의 바울 사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인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우리의 구원의 장래를 밝혀 주는 예언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계시자요, 진리와, 빛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많은 교회 지도자님들은 세상적으로 그토록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아가서 지금의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극도로 만족하며 주님의 무릎에 그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한국의 모든 회원들과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있기를 바라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주님의 집 곧 신전 안에서의 엔드우먼트 의식과 가족의 인봉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통하여 대리 침례 의식으로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 돌이킴으로서 낙원에 있는 선조의 영들이 구원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42번째 신전을 계획함

교회 대관장단은 서독의 프레이버그에 신전을 세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대략 697평방 미터의 넓이로 세워질 신전에서 서독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거룩한 의식들이 집행될 것이다.

교회가 구입한 0.8 헥타아르에 세워질 또 하나의 건물은 최근에 조직된 프레이버그 스테이크를 위한 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이 건물에는 예배실과 여러 개의 교실, 행정 사무실들이 들어설 것이다.

대관장단은 교회의 드레스덴 선교부를 관리하는 헨리 제이 버크하트 형제가 신전 건립을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정부의 관계 당국과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베를린에 있는 내무성과 드레스덴에 있는 국가 건축 위원회, 그리고 프레이버그 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신전은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교회 건축가들은 신전이 그 부근의 환경과 건축상 잘 조화를 이루도록 정부의 건축가들과 긴밀히 일하는 중이다. 그 주위의 풍경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신전과 관련하여 가장 잘 꾸며질 것이다.

일이 계획대로 진척되면 1983년 중반에는 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대관장단은 밝혔다.

그 신전이 완공되면, 헌납식을 갖기 전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공개될 것이다.

현재 신전 의식을 행하고 있거나 건축 중이거나 혹은 계획 단계에 있는 신전은 전 세계에 모두 41개이다. *

강릉 지부 탄생

지난해 10월 22일 선교사 4명이 강릉 지역으로 처음 온 이래 3개월이 채 못되어 강릉 지부가 조직되었다.

강릉 지부는 현재 서울 선교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강릉시 교동 교육청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교동은 강릉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며, 양양, 삼척, 장성 등지에 사는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강릉 지부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강릉 지역과 근처 군, 면에서 교회를 찾던 회원과 구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재 성찬식에 약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초대 지부장으로는 전투 경찰에 복무중인 황 재식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제1보좌는 이민호 장로 그리고 제2보좌는 김 태진 장로가 각각 수고하게 되었다. 강릉 지부장단은 강릉이나 삼척, 양양 등지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가 있으면 강릉 지부를 소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주소 : 강릉시 강릉 우체국 사서함 41호
전화 2-3579 *

성찬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강릉 지부 회원들 전원 중앙 (황 재식 지부장)

